



| 국민의 숲에 나무를 심고 왔습니다



아침 7시에 사무국을 출발하여 양평에 가는 길에 나무가게에 들러 앵두, 목련, 애기사과, 모과, 청매화, 철쭉 등의 여러 가지 묘목을 구입했습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고, 흙을 덮어주고, 물도 흠뻑 적셔주고, 2007년 4월 5일 (목) 식목일에 경기도 양평 신론리에 있는 '단체의 숲'에서 한그루녹색회 사무국 식구들과 신론리 지역주민들은 나무심기 체험행사를 가졌습니다. 잘 자라라는 기도와 함께 사랑을 듬뿍 주고 왔습니다.

아마도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날 심은 묘목들이 자라서 제법 나무의 자태를 드러내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커집니다. 예쁜 마음으로 심은 꽃씨들이 예쁘게 자라서 알록달록 예쁜 화원이 되어 있는 모습도 상상도 해봅니다. 외갓집 체험마을에서 제공해주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올 한해 푸른숲선도원들의 숲 교육장으로 쓰일 '단체의 숲'을 정비하고 다시 서울로 가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는 우리 다음세대에도 그 다음세대에도 계속 자라 울창한 숲, 건강한 숲을 이룰 것입니다.

〈글 · 이미숙 / 한그루녹색회 간사〉